



벌써 연말 분위기... 문화전당 '빛터널' 연말연시를 한 달 여 앞두고 22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입구에 빛터널이 설치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공론화, 만능 해결책인가

/ 뉴스초점 / '나주 SRF' '전남형 기본소득제' 등 공론화 열풍

광주도시철도 2호선 문제 해결 성공모델 삼아 곳곳서 추진
'직접민주주의 성공 모델' '단체장 책임회피 수단 악용' 장단점
시간·비용 부담 ... 의회 통해 주민 뜻 반영하는 등 대안 많아

전남도가 나주 혁신도시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잠정 결론지으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립 여부 등을 비롯해 '공론화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공론화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 사업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성공 모델이라는 평가와 함께 '주요

결정을 외부에 떠 넘기는'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특히,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처럼 이미 건설 관련 용역 등이 추진되고 있는 대형 사업의 발목을 잡는 형태의 공론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2일 전남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찬반 갈등이 거센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제를 공론화에 부침으로써

지난 16년간의 갈등에 성공적으로 마침표를 찍은 사례를 모델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나주시는 지난 8월29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소를 위해 공론화를 추진해 줄 것을 전남도에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전남도에 공론화 추진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또 '전남형 기본소득제' 역시 내년에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 전남형 기본소득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과 구직 청년 등에게 일정액의 지역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공론화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국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 일부에서는 공론화의 방법과 필요성을 따지는 '공론화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신고리 원전이나 대입제도, 부산 BRT, 제주 녹지국제병원, 대구시 신청사, 김해 장유소각장 문제를 비롯해 창원 스타필드 등 전국 각지에서 현안 사업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공론화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방

법 등이 없다는 점이다.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충분한 사전 설명과 홍보를 통해서도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길게는 수 개월이 소요되는 공론화가 아니라도 지방의회 등을 통해 시민의 뜻을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등 대안이 많다는 것이다.

앞서 진행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에서도 애초 2호선 건설을 반대했던 시민 중 35.6%, 유보 입장이었던 시민 중 73.6%는 공론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 78.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광주시가 사전에 체계적으로 설명했다면 공론화 과정은 불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영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장 "공론화가 만능일 수는 없다. 헌법 개정의 국회통과 정족수, 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이다"면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사업을 공론화에 불입 때 단순 다수결이 아닌 가중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화전당장 차관급 상향·조직 통합 찬성” 도종환 장관 밝혀 ... 목은 과제 해결 주목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주요 과제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차관급 상향 조정과 조직 통합(광주일보 11월21일자)에 대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긍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목은 과제 해결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 장관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의 직급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이원화된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날 최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도 정무직으로 하고 있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시설 규모나 정원이 비슷한 예술의전당은 전직 14명의 전당장 중에 5명이 전직 차관 출신으로 선임됐다”며 “아시아문화전당은 매년 600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복합문화시설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기관 만큼

역할과 위상을 고려해 차관급 정무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통합해 일원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장관은 찬성의 뜻을 나타내며 “아시아문화전당장 직급 상향과 조직 통합 등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무 부처 장관이 문화전당 현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특별법 개정안을 낸 의원들의 소속도 여당인 민주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 소속이어서 자유한국당만 설득하면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사업 타지역에 넘어가나

다음주 성과 내야 추진 가능
“광주 아닌 원하는 곳 많다”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투자자인 현대자동차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가 노조 반대에도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하고, 신설 합작법인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데드라인으로 알려진 이달 말까지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안건을 상정하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성과를 내야 내년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광주시가 시한에 쫓기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난항을 겪자 다른 지역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

에서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다른 곳, 원하는 데서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산에서도 원한다. 원하는 데가 많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당 제3정책조정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광주형 일자리의 진행 모습을 보면 기업은 빠져 있고 노동만 부각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은 “계속 합의를 못 찾으면 군산 등 제3의 대안도 모색할 때가 됐다. 공모형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협상팀은 지역노동계와 작성한 합의문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차와 협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협상팀은 “(홍영표, 이원욱 의원의 발언은) 협상이 생각보다 길어지다보니 광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독려하는 표현이라고 본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투자자와 투자자 간의 협상을 하고 있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일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3주년

공연

아시아를 위한 심포니 11.23~11.24.
코믹우화극 '소' 11.30~12.01.

영화

ACC 시네마테크 앙코르 11.21~11.23.

전시

평화의 창(窓) 11.06~12.02.
ACC 창작공간네트워크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11.26~11.28.

학술

전문인력아카데미 국제컨퍼런스 11.22~11.24.
201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심포지엄 11.15~11.16.

마음을 잇다 아시아를 잇다
#늘 ACC

www.acc.go.kr | 1899-5566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AICI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SIA CULTURE CENTER

AICI
아시아문화원
ASIA CULTURE INSTITUTE